

강철의 대결: 쿠르스크 초원의 전차전

제1장: 새벽 안개 속의 그림자

1943년 7월 12일 새벽 5시 30분, 프로호로프카 서쪽 12km

이른 새벽 안개가 러시아 초원을 하얀 베일로 덮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아직 대지는 차가운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이 고요한 새벽이 곧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차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독일 제2 SS기갑군단 소속 중전차대대의 티거 I 전차 '검은 기사' 호 안에서, 하우프트만 발터 슈트라우스는 지휘관 쿠피라를 통해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스물여덟 살의 슈트라우스는 이미 동부전선에서 2년간 싸워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가 새긴 깊은 주름이 있었고, 회색 눈동자에는 전쟁의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헤르 하우프트만, 무전 점검 완료했습니다." 무전수 게프라이터 루카스 바이어가 보고했다. 스무 살의 바이어는 3개월 전 서부전선에서 전속되어 온 신참이었다. 아직 그의 얼굴에는 고향 바이에른의 순박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부전선의 잔혹함을 목격하며 점점 굳어져가고 있었다.

"좋다, 바이어. 엔진 상태는 어떤가, 하인츠?" 슈트라우스가 조종수에게 물었다.

"완벽합니다, 헤르 하우프트만. 마일바흐 HL230 엔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종수 펠트베벨 하인츠 뮐러가 대답했다. 그는 이 700마력 엔진의 모든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티거 I은 독일이 자랑하는 최신에 중전차였다. 중량 57톤, 정면 장갑 100mm, 측면 장갑 80mm의 강력한 방어력과 8.8cm KwK 36 L/56 주포의 치명적인 화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만큼 연료 소모가 심했고, 기계적 결함이 잦았다.

"포수 준비 상태는?"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88mm 주포 완전 점검 완료. 철갑탄 92발, 고폭탄 8발 장전 완료했습니다." 오버게프라이터 클라우스 짐머가 답했다. 그는 이 전차의 가장 경험 많은 포수였다.

슈트라우스는 망원경을 들고 전방을 살펴보았다. 저 멀리 소비에트군의 방어선이 있을 것이었다. 정보에 따르면 소비에트 제5근위전차군이 이 일대에 대규모로 전개되어 있다고 했다.

"바이어, 본부에 보고해라. 검은 기사, 예정된 위치에서 대기 중이라고."

"야불, 헤르 하우프트만!"

같은 시각, 동쪽 2km 지점

소비에트 제5근위전차군 제29전차군단 소속 T-34/76 '붉은 복수자' 호에서는 가르드 레이테난트 알렉산드르 볼코프가 같은 새벽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른두 살의 볼코프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생존자였다. 그의 왼쪽 볼에는 독일군 수류탄 파편이 남긴 흉터가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조국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다.

"동지 레이테난트, 엔진 예열 완료했습니다." 조종수 세르잔트 이반 코즐로프가 보고했다. 스물다섯 살의 코즐로프는 트랙터 정비공 출신으로, T-34의 V-2-34 디젤 엔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T-34/76은 소비에트가 자랑하는 중형전차였다. 중량 26.5톤으로 티거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경사 장갑 설계로 방어력을 극대화했다. 정면 장갑 두께는 45mm에 불과했지만, 60도 경사로 인해 실제 방어력은 90mm에 달했다. 76.2mm ZiS-5 주포는 티거의 88mm보다 작지만, 뛰어난 관통력을 자랑했다.

"포수 준비 상태는?" 볼코프가 물었다.

"76mm 주포 점검 완료. BR-350A 철갑탄 77발 장전 완료했습니다, 동지 레이테난트." 포수 세르잔트 미하일 페트로프가 답했다. 그는 모스크바 전투에서 독일군 전차 7대를 격파한 경험이 있었다.

볼코프는 망원경을 통해 서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너머로 독일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어제 밤 경찰대가 대규모 기갑부대의 이동을 보고했다.

"코즐로프, 전차들은 얼마나 많이 매복해 있는가?"

"우리 대대 전체입니다, 동지 레이테난트. T-34 32대와 T-70 경전차 8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수적 우위가 있었다. 하지만 독일군의 티거 전차는 무시무시한 상대였다. 한 대의 티거가 소비에트 전차 여러 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었다.

새벽 6시 15분 -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다

태양이 높아지면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초원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 사이로 작은 언덕들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자작나무 숲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망원경의 배율을 최대로 올렸다. 저 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짐머, 전방 2시 방향, 거리 1,200미터. 뭔가 움직이고 있다."

짐머가 주포 조준경을 통해 확인했다. "확인했습니다. 소비에트 전차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식별은 어렵습니다."

"바이어, 본부에 보고해라. 적 전차 발견, 교전 임박."

"야볼!"

그 순간 동쪽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전차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인츠, 엔진 최대 출력으로 올려라. 우리도 전진한다."

"야볼, 헤르 하우프트만!"

마일바흐 엔진이 굉음을 내며 회전수를 높였다. 57톤의 강철 덩어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넓은 궤도가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전진했다.

제2장: 첫 번째 접촉

오전 6시 30분 - 1,000미터 거리

안개가 대부분 걷히자 양측 모두 상대방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망원경을 통해 적어도 6대의 T-34가 부채꼴 대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짐머, 거리 1,000미터. 선두 T-34를 조준해라."

"조준 완료했습니다, 헤르 하우프트만."

"아직 사격하지 마라. 800미터까지 접근하면 첫 발로 확실히 처리한다."

티거의 88mm 주포는 2,000미터에서도 T-34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 발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거리를 좁히는 것이 현명했다.

볼코프도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잠망경을 통해 보이는 것은 악명 높은 티거 전차였다.

"페트로프, 티거다. 정면 장갑 100mm, 우리 76mm로는 정면 관통이 어렵다."

"측면을 노려야겠군요, 동지 레이테난트."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코즐로프, 지그재그로 전진해라. 일직선으로 가면 표적이 된다."

T-34가 좌우로 흔들리며 전진하기 시작했다. 디젤 엔진의 독특한 소리가 초원에 울렸다.

오전 6시 45분 - 800미터 거리

"거리 800미터!" 짐머가 외쳤다.

"사격!"

WOOM!

88mm 주포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포탄을 뿜어냈다. 57톤의 티거가 반동으로 뒤로 밀려났다. 포탄은 시속 810km로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T-34는 그 순간 급격히 좌회전을 했다. 8.8kg의 철갑탄이 T-34가 있던 자리 바로 옆 흙더미를 날려버렸다.

"빗나갔습니다!" 바이어가 외쳤다.

"재장전! 빨리!" 슈트라우스가 명령했다.

장전수 게프라이터 슈테판 홀츠가 새로운 포탄을 포미에 밀어넣었다. 2.5톤의 포탑이 목표를 추적하며 회전했다.

그 순간 T-34의 76mm 주포가 응답했다.

BOOM!

3.02kg의 BR-350A 철갑탄이 티거의 정면 장갑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100mm 두께의 강철 장갑은 그 충격을 완전히 흡수했다.

CLANG!

포탄이 장갑에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키고 튕겨 나갔다. 티거 안의 승무원들은 거대한 해머로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관통되지는 않았다.

"명중했지만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어가 보고했다.

"우리 장갑을 믿어라!" 슈트라우스가 외쳤다.

같은 순간, T-34 내부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페트로프가 보고했다.

볼코프는 이를 악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T-34의 76mm 주포로는 티거의 정면 장갑을 정면에서 관통하기 어려웠다.

"측면으로 돌아가라! 다른 차들도 동시에 움직여라!"

무전기를 통해 다른 T-34들에게 명령이 전달되었다. 6대의 T-34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술은 명확했다.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티거를 포위하고, 측면 장갑이 얇은 부분을 노리는 것이었다.

오전 7시 - 700미터 거리

"두 번째 사격!" 슈트라우스가 명령했다.

WOOM!

이번에는 명중했다. 88mm 포탄이 우측 T-34의 포탑을 직격했다. 45mm 경사 장갑으로도 88mm 포탄의 위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BOOM!

T-34가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다. 포탑이 차체에서 분리되어 공중으로 날아갔다.

"명중! 한 대 격파!" 짐머가 외쳤다.

하지만 이제 5대의 T-34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티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티거의 강력한 주포도 한 번에 한 대씩만 상대할 수 있었다.

"좌측에서 두 대, 우측에서 두 대, 정면에서 한 대가 접근 중입니다!" 바이어가 보고했다.

슈트라우스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하인츠, 후진! 거리를 벌려라!"

티거가 후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대 속도 38km/h의 티거로는 최대 속도 55km/h의 T-34들을 따돌릴 수 없었다.

제3장: 포위망 속의 사투

오전 7시 15분 - 다대다 전투

상황이 급변했다. 티거 한 대가 T-34 다섯 대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초원 곳곳에서 포성이 울렸다.

볼코프의 T-34가 티거의 우측면을 향해 돌진했다. 거리 500미터에서 사격했다.

BOOM!

76mm 포탄이 티거의 측면 장갑을 강타했다. 80mm 두께의 측면 장갑은 정면 장갑보다 얇았지만, 여전히 강력했다.

CLANG!

포탄이 튕겨 나갔다. 하지만 장갑에 균열이 생겼다.

"아직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페트로프가 보고했다.

"계속 사격해라! 같은 지점을 노려라!"

다른 T-34들도 동시에 사격했다. 티거는 사방에서 포탄을 맞고 있었다. 대부분의 포탄이 튕겨 나갔지만, 누적된 충격으로 인해 장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티거 내부에서 슈트라우스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짐머, 가장 가까운 놈부터 하나씩 처리한다!"

"좌측 T-34, 거리 400미터 조준 완료!"

"사격!"

WOOM!

세 번째 T-34가 폭발했다. 이제 네 대가 남았다.

하지만 그 순간 좌측에서 날아온 포탄이 티거의 측면 장갑을 관통했다. 같은 지점을 계속 타격받은 장갑이 마침내 뚫린 것이었다.

BOOM!

티거 내부에 불꽃이 튀었다. 슈트라우스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헤르 하우프트만!" 바이어가 달려갔다.

"괜찮다! 계속 싸워라!"

하지만 티거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유압 시스템이 파괴되어 포탑 회전이 느려졌다.

오전 7시 30분 - 절망적인 상황

이제 티거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기동력이 제한되고, 포탑 회전도 느려졌다. 반면 T-34들은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탄약 상황은?"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철갑탄 75발 남았습니다." 홀츠가 답했다.

"엔진 상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유압이 문제입니다." 뮐러가 답했다.

볼코프는 승리를 확신했다. 티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마지막 공격이다! 모든 전차, 동시에 돌격!"

네 대의 T-34가 사방에서 티거를 향해 돌진했다. 거리 200미터에서 일제히 사격했다.

BOOM! BOOM! BOOM! BOOM!

네 발의 포탄이 동시에 티거를 강타했다. 하나는 정면 장갑을 맞고 튕겨 나갔지만, 다른 세 발은 측면과 후면의 약한 부분을 관통했다.

BOOM! BOOM! BOOM!

티거 내부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탈출해라!" 슈트라우스가 외쳤다.

승무원들이 급히 탈출했지만, 조종수 뮐러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오전 7시 45분 - 전투의 종료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독일군의 자량 티거 전차가 불타고 있었다.

볼코프는 자신의 T-34에서 내려 전장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부대 6대 중 4대가 남았다. 2대를 잃었지만, 티거 한 대를 격파했다.

"동지 레이테난트, 독일군 승무원들이 탈출했습니다." 페트로프가 보고했다.

"그들을 체포해라. 하지만 부상자는 치료해줘라."

볼코프는 불타는 티거를 바라보았다. 강력한 적이었지만, 결국 수적 우위와 전술적 우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제4장: 포로가 된 적들

오전 8시 - 전투 후

슈트라우스는 왼쪽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으로 누르며 앉아 있었다. 바이어가 그의 옆에서 간이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다. 짐머와 홀츠는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떨리는..." 슈트라우스가 중얼거렸다.

"그는 좋은 조종수였습니다." 바이어가 위로했다.

소비에트 병사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볼코프가 독일어로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포로입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대우받을 것입니다."

슈트라우스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지휘관입니까?"

"네, 가르드 레이테난트 알렉산드르 볼코프입니다."

"하우프트만 발터 슈트라우스입니다. 훌륭한 전술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의외의 반응에 놀랐다. "감사합니다. 당신들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두 지휘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두 명의 직업군인이었다.

오전 8시 30분 - 의료 지원

소비에트 군의(軍醫) 마리아 바실리에바 소위가 독일군 포로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과 소비에트군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해온 경험이 있었다.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녀가 슈트라우스에게 러시아어로 물었다.

슈트라우스는 독일어로 답했다. "조금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실리에바는 독일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니다. 파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저는 의사입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치료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슈트라우스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전 9시 - 전투 보고

볼코프는 무전기를 통해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있었다.

"여기는 붉은 복수자. 독일군 티거 전차 1대 격파. 아군 손실 T-34 2대. 포로 4명 확보."

"잘했다, 볼코프. 계속 전진하라."

"이해했습니다."

볼코프는 무전기를 끄고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페트로프가 다가왔다.

"동지 레이테난트, 다른 곳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합류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먼저 포로들을 후방으로 보내야 한다."

볼코프는 슈트라우스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우프트만, 당신은 후방의 포로수용소로 이송될 것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슈트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볼코프는 잠시 생각했다. "조국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저도... 조국을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다.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는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제5장: 전쟁 속의 인간성

오전 10시 - 포로 이송

소비에트 트럭이 도착했다. 독일군 포로들이 차에 태워졌다. 슈트라우스는 마지막으로 불타는 자신의 전차를 바라보았다.

"검은 기사여, 잘 가라." 그가 중얼거렸다.

바이어가 그의 옆에서 말했다. "헤르 하우프트만, 우리가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뭘러는..."

"그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트럭이 출발했다. 슈트라우스는 창 밖으로 보이는 러시아 초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여전히 포성이 들렸다. 쿠르스크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5장: 전쟁 속의 인간성

오전 11시 - 새로운 전투

볼코프의 T-34 부대는 다시 서쪽으로 향했다. 정찰 보고에 따르면 독일군의 또 다른 기갑 부대가 접근하고 있었다.

"동지 레이테난트, 정면에 독일군 판터 전차 3대가 보입니다." 페트로프가 보고했다.

판터 전차는 티거보다 더 위험한 적이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강력한 주포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전차, 산개하라. 우리는 이미 티거 한 대를 격파했다. 하지만 판터는 다른 차원의 적이다."

볼코프는 무전기를 통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4대의 T-34가 넓은 간격으로 전개했다.

독일군 판터 전차 부대

중위 에리히 바그너가 지휘하는 판터 전차 '회색 늑대' 호는 45톤의 거대한 몸체로 초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7.5cm KwK 42 L/70 주포는 2,000미터에서도 T-34를 정확히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했다.

"헤르 오버루트난트, 전방에 소비에트 전차 4대 확인." 포수 펠트베벨 한스 크뤼거가 보고했다.

"거리는?"

"1,500미터입니다."

"아직 이르다. 1,200미터까지 접근한 후 사격한다."

바그너는 스물여섯 살의 젊은 장교였다. 서부전선에서 영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싸워본 경험이 있었지만, 동부전선은 처음이었다.

"조종수, 속도를 줄여라. 안정적인 사격을 위해서다."

"야볼, 헤르 오버루트난트."

판터의 마일바흐 HL230 엔진이 속도를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T-34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15분 - 치명적인 대결

거리 1,200미터에서 독일군이 먼저 사격했다.

WOOM!

75mm 주포가 화염을 뿜었다. 6.8kg의 철갑탄이 초속 935m로 날아갔다.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첫 번째 T-34가 포탄을 직격당했다.

BOOM!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T-34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한 대 격파!" 크뤼거가 외쳤다.

하지만 소비에트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볼코프가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전차, 지그재그 기동! 동시에 사격!"

세 대의 T-34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동하며 사격했다.

BOOM! BOOM! BOOM!

하지만 76mm 포탄들은 모두 빗나갔다. 움직이는 표적을 1,200미터 거리에서 명중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전 11시 30분 - 불균형한 전투

판터 전차의 우위는 압도적이었다. 두 번째 T-34가 격파되었다. 이제 볼코프의 전차를 포함해 두 대만 남았다.

"동지 레이테난트, 이대로는 전멸입니다!" 페트로프가 절규했다.

"후퇴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에트 근위군이다!"

볼코프는 결단을 내렸다. 정면 돌격이었다.

"모든 전차, 최대 속도로 접근한다! 200미터까지 접근해서 측면을 노려라!"

T-34의 디젤 엔진이 최대 출력을 내기 시작했다. 55km/h의 속도로 판터를 향해 돌진했다.

"미친놈들이 돌격해 온다!" 바그너가 외쳤다.

"침착하게 하나씩 처리하자."

세 번째 T-34가 격파되었다. 이제 볼코프의 전차만 남았다.

오전 11시 45분 - 마지막 돌격

볼코프의 T-34는 혼자서 세 대의 판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미친 짓이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코즐로프, 좌우로 흔들어라! 표적이 되지 마라!"

"알겠습니다, 동지 레이테난트!"

T-34가 뱀처럼 좌우로 흔들리며 접근했다. 판터들의 사격이 계속되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기는 어려웠다.

거리 400미터.

"페트로프, 준비해라!"

"준비 완료!"

거리 200미터.

"사격!"

BOOM!

76mm 포탄이 선두 판터의 측면 장갑을 강타했다. 80mm 두께의 측면 장갑이 관통되었다.

BOOM!

판터가 폭발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대의 판터가 동시에 사격했다.

WOOM! WOOM!

두 발의 75mm 포탄이 T-34를 강타했다. 하나는 포탑을, 하나는 차체를 직격했다.

BOOM! BOOM!

T-34가 큰 폭발과 함께 파괴되었다.

제6장: 희생과 명예

오전 12시 - 침묵의 전장

초원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독일군 판터 1대, 소비에트군 T-34 5대가 불타고 있었다.

바그너는 자신의 판터에서 내려 전장을 둘러보았다.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판터 2대뿐이었다.

"잠깐, 저기 생존자가 있습니다!" 크뤼거가 외쳤다.

볼코프가 파괴된 T-34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바그너가 그에게 다가갔다. 볼코프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의무병을 불러라. 그를 치료해줘야 한다."

"하지만 헤르 오버루트나트, 그는 적입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한다."

오후 1시 - 독일군 야전병원

볼코프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독일군 야전병원에 있었다. 독일군 의사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바그너가 독일어로 말했다.

볼코프는 러시아어로 답했다. "나는... 포로인가요?"

바그너는 러시아어를 조금 알고 있었다. "네, 하지만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부하들은?"

바그너는 고개를 저었다. 볼코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바그너가 위로했다.

"당신도 훌륭한 전술가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잔인합니다."

두 장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적이었지만, 서로의 용기를 인정하고 있었다.

오후 2시 - 포로수용소에서의 재회

독일군 포로수용소에서 슈트라우스와 볼코프가 재회했다. 둘 다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우리가 다시 만나다니..." 슈트라우스가 말했다.

"운명이겠지요." 볼코프가 답했다.

"당신의 부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전사했습니다. 당신은?"

"한 명을 잃었습니다. 좋은 조종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전쟁의 잔혹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었다.

오후 3시 - 전쟁에 대한 성찰

포로수용소의 작은 막사에서 슈트라우스와 볼코프는 대화를 나누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딸이 뮌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볼코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제7장: 전쟁의 끝

1945년 5월 8일 - 독일 항복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포로수용소에 전해졌다. 슈트라우스와 볼코프는 여전히 같은 막사에 있었다.

"끝났습니다." 볼코프가 말했다.

"네, 끝났습니다." 슈트라우스가 답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1945년 6월 15일 - 작별

볼코프가 소비에트 송환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슈트라우스는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안녕히 가십시오, 알렉산드르."

"안녕히 계십시오, 발터."

두 사람이 악수를 했다. 2년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제 고향 투폴라에 오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뮌헨에 오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볼코프가 트럭에 올랐다. 슈트라우스는 그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1946년 3월 - 각자의 새로운 시작

투폴라, 소비에트 연방

볼코프는 고향에 돌아와 트랙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그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나타샤가 편지를 가져왔다.

"여보,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요."

볼코프는 편지를 열었다. 슈트라우스에게서 온 것이었다.

*"친애하는 알렉산드르에게,

뮌헨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나눈 우정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친구, 발터"*

볼코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뮌헨, 독일

슈트라우스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계를 다루는 데 능숙했다.

아내 잉그리드가 물었다.

"그 러시아 장교에게서 답장이 왔니?"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곧 올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전쟁에서 적이었던 사람과 친구가 되다니."

"전쟁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성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에필로그: 1955년 - 10년 후

베를린, 독일

볼코프와 슈트라우스가 베를린에서 만났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발터!"

"알렉산드르!"

두 사람이 포옹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때로 쿠르스크에서의 그 날을 생각합니다." 슈트라우스가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말입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를린의 거리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됩니다." 슈트라우스가 말했다.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볼코프가 답했다.

작가의 말

쿠르스크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최대 규모의 전차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3년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서 독일군과 소비에트군은 수천 대의 전차를 동원했다.

이 소설은 그 거대한 전투의 작은 단면을 다룬 것이다. 전쟁의 잔혹함과 동시에 인간성의 숭고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차라는 강철 기계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었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경계에 불과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싹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끝